

1회용품 줄이기 ... 업주들 ‘아우성’



불별더위 피하려는 손님들
안된다는 종업원과 실랑이
유리·도자기잔 준비 못하고
설거지에 진땀 빼기도
홍보·교육 먼저 하고 단속을

1일 광주시 동구 무등산 중심사 인근에 자리한 A커피전문점에서는 손님과 종업원간 승강기가 벌어지고 있었다.

종업원이 아이스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한 손님에게 "매장에서 마실 거면 머그잔(도자기잔)에 담아드리겠다"고 하자, 손님은 "조금만 있다 나갈 테니 테이크아웃잔(일회용컵)에 담아달라"며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금남로 인근 B커피숍에서도 테이크아웃잔을 받아 든 손님들이 매장 내 테이블에 앉자 종업원들이 "테이크아웃 손님들은 매장에 계시면 안된다"고 알리고 있었다. 일부 손님은 "더워서 그러는데 조금 앉아 있는 것도 안되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시행된 1일 광주시내 커피숍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었다. 미처 유리잔이나 도자기잔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업주들은 설거지를 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단속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소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환경부는 이처럼 반발과 혼선이 잇따르자, 이날 단속을 하루 유예하고 전국 자치단체 재활용 담당자들과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광주시는 2일 5개 구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단속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수도권에서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일어나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 근거는 이미

재정돼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과태료는 면적과 이용인원, 적발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이다.

광주지역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2017년 기준)는 커피숍·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1만9866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 2121곳, 도소매업 1658곳, 집단급식소 1509곳, 목욕장 217곳 등 총 2만5436곳이다. 지난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법적으로 이날부터 단속된다.

하지만, 일회용품 단속 현장에선 단속을 담당하는 구청이나 대상 업주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동구청 인근 커피전문점 종업원 C(여·23)씨는 "점심 시간에만 커피 100~150잔을 팔고 있는데 손님과의 말싸움은 둘째치더라도 주문을 받느라 제대로 설거지조차 못하고 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한 자치구 폐기물관리 담당자는 "현장을 나가보면 규모가 작은 커피전문점은 제대로 된 싱크대조차 없는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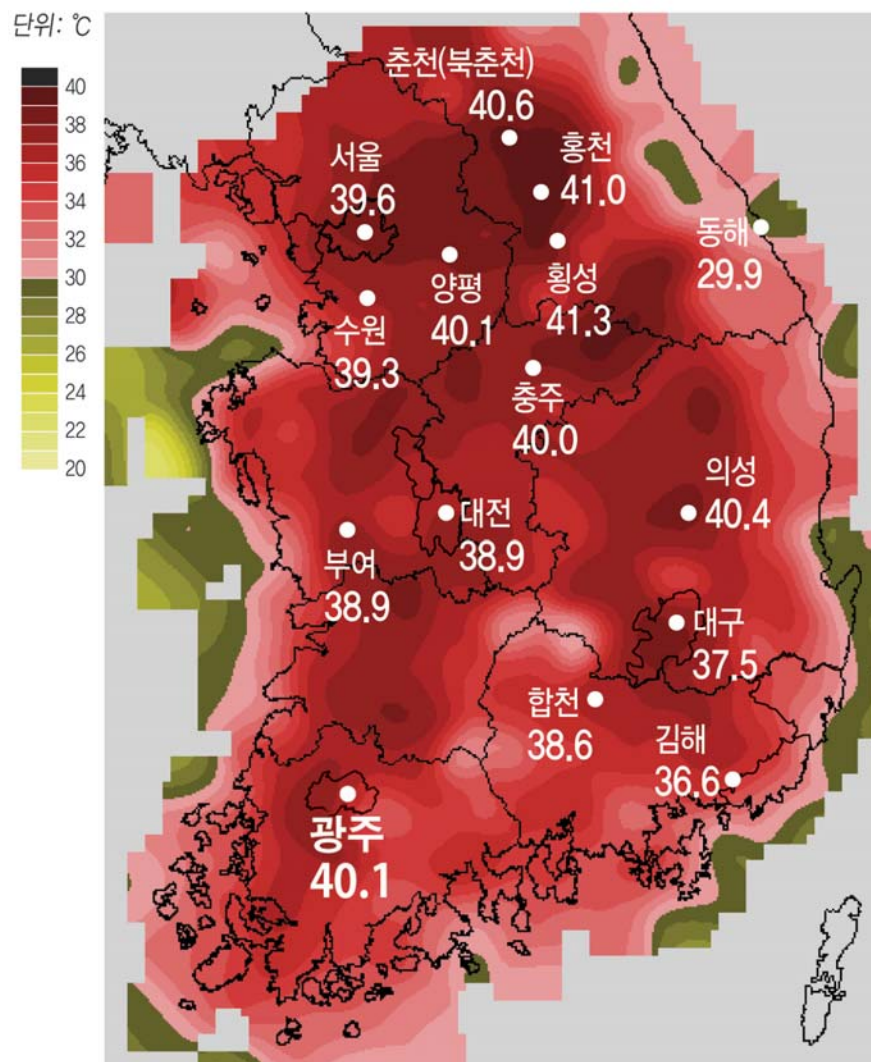
정동훈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현재로서는 당장 단속에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는 "일회용품 줄이기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만큼 전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업주·시민 모두에게 홍보·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국이 불가마 ... 광주 40.1도

'사상 최악 폭염' 1일 지역별 최고기온



자료/기상청

연합뉴스

서구 풍암동 40도 넘겨 비공식 기준 역대 최고 폭염 기록

광산구 39.1도·함평 38.9도·나주 38.8도·담양 38.1도

민주 김태년 정책위의장 "재난안전법 폭염 포함 서두르겠다"

지난 1938년 광주축후소(광주지방기상청 전신)에서 광주 기온을 관측한 이래 처음으로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비공식 기준이지만, 역대 최고 폭염 기온을 기록한 것이다. <관련기사 7면>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6분께 서구 풍암동이 40.1도 광주 광산 39.1도, 함평 38.9도, 나주 다도 38.8도, 담양 38.1도, 광주 37.7도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서구 풍암동에서 기록한 40.1도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측정했기 때문에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전까지 비공식적으로 가장 높았던 기온은 지난 2012년 8월 5일 광주시 광산구 용곡동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가 관측한 39.5도였다. 기상청은 종관 기상관측장비(ASOS)가 있는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에서 관측한 기온을 광주의 공식 기온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의 공식 최고기온은 지난 달 27일 기록한 38.5도다. 지난날 광주·전남의 각종 폭염 기록도 역대급이다. 지난 7월 한 달간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은 27.1도로, 7월 평균 기온 역대 2위에 올랐

다. 또 평균 최고기온은 31.4도로 2위, 평균 최저기온은 23.6도로 5위였다. 지난날 광주·전남의 폭염일수(낮 최고기온 33도 이상)도 평균 12.1일로, 1973년 이래 1994년(16.3일)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열대야 일수(최저 25도 이상 기록일수) 역시 평균 9.3일로 역대 5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째 폭염 최장 지속기록이 이어지는 등 연일 연속기록을 경신 중이다.

서울도 1일 39.6도를 기록,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만에 역대 최고기온을 찍었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서울의 기온은 1994년 7월 24일 기록한 38.4도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판문점 도보다리’와 똑같이 ‘광주 도보다리’ 만든다

충효동 호수생태원에 재현 통일부와 논의 ... 11월 공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도중 나란히 걸으면서 유명해진 판문점 '평화의 집' 인근 '도보다리'가 광주에 재현된다.

광주시는 1일 "남북평화 분위기의 상징적인 이미지였던 평화의집 도보다리와 똑같은 다리를 북구 충효동 호수생태원에 재현한다"면서 "공무원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도보다리 재현은 남부소방서에 재직 중인 박선홍 소방관의 제안으

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도보다리는 1953년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임무수행을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습지 위에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유엔사가 '풋 브릿지'(Foot Bridge)라고 칭하던 것을 그대로 번역해 '도보다리'라고 부르게 됐다.

광주시는 호수생태원에 비무장지대를 정원으로 형상화 한 형지에 작가의 작품 'DMZ'와 '해우소'가 설치돼 있어 도보다리가 들어서면 평화를 염원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예산 2000만원을 들여 길이 70m, 폭 2m의 도보다리와 똑같은 다리를 재현할 계획이다. 현재 호수생태원에는 다양한 형태의 다리가 조성돼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놓여진 도보다리와 비슷한 형태의 다리가 많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재현해 낼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도보다리가 유명해지면서 지난 5월 전주한지문화축제 기간에 한시적으로 도보다리를 축제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돼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광주시는 최근 통일부와 도보다리 재현 여부를 논의했고, 공사를 거쳐 오는 11월



광주시가 북구 충효동 호수생태원에 있는 나무다리를 판문점 도보다리와 같은 형태로 재현하기로 했다.

께 이 다리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호수생태원은 4만938㎡ 규모이며 광장, 생태연못, 관찰대, 데크탐방로, 전망대, 습지 등을 갖추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광주 모 사립 여고 성희롱·성추행
- 교사 20%가 수사대상 '충격' ▶6면
직구가 살아야 마운더서 살아 남는다
-KIA 투수들 직구 가다듬기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 습관도 시작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il.com